



김선빈의 '올스타 3전4기'

'올스타 슬럼프는 없다.'

KIA 김선빈은 입단 6년 만에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자신의 기록을 남겼다. 지난 19일 포항에서 열린 2013 올스타전에서 6회 2루수로 들어가면서 마침내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것이다.

첫 경기였지만 사실 김선빈에게는 이번이 4번째 올스타 선정이다. 2010년 감독추천을 받았고 2011년에는 팬들의 선택을 받아 베스트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도 감독추천으로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단 후 처음으로 찾은 2010년 올스타전에서는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연장 승부에 대비해 투수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순고 에이스 출신의 피칭을 기대했지만 황재균(롯데)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김선빈은

4차례 선정됐지만 올 첫 축제의 무대 출전 기쁨

잇단 부상 슬럼프... 올해는 당당히 3할 칠 것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고 짐을 싸다.

당당히 베스트 멤버로 뽑혔던 2011년에는 7월 넥센과의 경기에서 안면 골절상을 당하면서 출전을 포기해야 했다. 지난해 포항에서도 올스타전을 며칠 앞두고 홈에 들어오다가 다시 얼굴 부상을 당하면서 올스타전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

마침내 올 시즌 감독 추천으로 나지완·차일목과 함께 올스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섰다. 사전 이벤트로 진행된 홈런 레이스에서는 나지완의 배팅볼 투수로 나서 준우승에 역할을 했고, 번트왕 참가자로도 축제에 함께했다.

김선빈은 "다른 팀의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뭔가 색다른 기분이었다. 또 신인 때 2루수로 나가보고 오랜만에 2루에 섰는데 어색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고 올

스타전 참가 소감을 밝혔다.

무사히 올스타전을 다녀온 만큼 '올스타 슬럼프'에서도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김선빈은 올스타전을 전후로 부상과 슬럼프로 인한 아픈 시간을 보내곤 했다. 체력이 문제였다.

김선빈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곤 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서 부상도 잘 당하고 성적도 내려갔다. 사실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올스타전을 잘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이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많이 했다. 체력적인 부분만 버텨준다면 비라던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빈이 바라는 목표는 3할이다. 매년 전반기 고공행진을 하던 타율은 체력저하와 함께 하락세로 돌아서곤 했다. 그리

던 올스타전에도 다녀온 만큼 이번에는 3할을 꼭 이루고 싶다. 8월은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중요한 도전의 시간이다.

김선빈은 "전반기 휴식기가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휴식기가 적다. 8월은 실 틈 없이 경기를 해야 하는데 8월만 잘 넘기면 3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타석에서 치려고 달려드는 편인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생각이다. 하지만 치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칠 생각이다. 선배들이 부상 없이 상위타순에 서주면 9번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책 5리는 목표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실수없이 든든하게 내야를 지키는 것도 김선빈의 큰 비결이다.

김선빈은 "겨울에 훈련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5개의 실책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지금 7개다. 목표했던 것을 넘어서서 실망이 크긴 하지만 남은 시즌 안정적인 수비를 하고 싶다. 한자리 수 실책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일목, LG 리즈에 "나지완 홈런 배팅 볼 던져볼래"

올스타전 말말말

▲리즈가 던져볼래? = KIA 차일목, 리즈(LG)에게 나지완(KIA)의 홈런배팅 볼 배팅 볼 투수를 해보겠냐면서.

▲(박)병호 나오라고 해 = LG 이병규, 홈런 레이스 4강에서 나지완이 홈런을 때리지 못하고 있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레이스에서 먼저 타석에 선 박병호(넥센)는 한 개의 홈런도 때리지 못하자 탈락을 생각하고 덕아웃으로 들어와 있었다. 두 선수 모두 0개를 기록하면서 서든데스 끝에 나지완이 결승에 진출했다.

▲영광이었습니까 = 홈런 레이스 준우승을 차지한 나지완, 국민타자와 이승엽과 승부를 했다며. 이승엽은 8번째 출전 만에 처음으로 올스타전 홈런왕에 올랐다.

▲성범이 미안하다. 태군이 팬광아 = 홈런

레이스가 끝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NC의 김태균과 나성범. 김태균이 배팅볼 투수로 나서지만 나성범은 홈런 1개를 치면서 나지완에게 밀려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유니폼 색이 다른데 함께 하는 게 재미있어요 = 박병호, 첫 올스타 출전이라며.

▲국민타자를 이겨보겠습니다 = 삼성 이승엽과 홈런 레이스 맞대결에 나선 롯데 강민호. 8강에서 강민호는 1개, 이승엽은 8개의 홈런을 때렸다.

▲오늘은 완전 즐기는 것. 아니 즐기자 아니라 놀자 = 이병규, 올스타전은 팬들과 하는 신나는 자리라며. 선수들이 팬들에게 감동·재미를 주자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길 바라다면서. 이번 올스타전은 류종일 삼성 감독이 이끄는 동군이 롯데 전준우의 역전 투런을 앞세워 선동열 감독의 서군을 꺾고 4-2로 승리를 거뒀다. 전준우는 3안타 맹활약으로 올스타전 MVP에 선정됐다.

▲올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지난해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했던 나성범, 경기를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자. 지난해 퓨처스 올스타전은 이를 연속 비가 계속되면서 무산됐다.

▲재 뭐하냐. (강)윤규야 = LG 봉준근, 세 위닝은 배트를 맞추는 퍼펙트 피쳐 이벤트에 출전한 넥센 강윤규가 타켓에 한참 벗어나게 공을 던지자.

▲하나는 맞춰야지. 준우승인데 = 김태균, 퍼펙트 피쳐 결승전에 진출한 동료 이재학이 타켓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들어오자.

▲선빈아, 용기가 지켜보고 있다 = KIA 프린트, 번트왕 이벤트에 참가하는 김선빈에게 올 시즌에도 타이틀을 가져오라며. 지난해 이용규가 초대 번트왕 자리에 올랐지만 김선빈은 0점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 감독이 지난 2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90분 내내 압박... 홍명보는 달랐다

데뷔전 동아시안컵 호주전 골대 불운 0대0... 골 결정력 속제



홍명보(44) 축구대표팀 감독이 데뷔전으로 치른 2013 동아시안컵 호주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끈끈한 조직력을 선보이며 최근 침체한 한국 축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다만 마지막 결정력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2013 동아시안컵 남자부 1차전에서 90분동안 상대를 강하게 몰아쳤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득점없이 비겼다.

그러나 대표팀은 최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한편 스페인의 '티키타카' 축구를 보는 듯한 간결하고 짧은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이전 대표팀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유럽과가 모두 빠진 가운데 국내와 위주로 팀이 짜이면서 선수들의 강한 '생존 의식'이 경기에 그대로 투영돼 어느 때보다 속도감이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은 축구를 팬들에게 선보였다.

◇'스피드-압박-템포' 변화=한국은 이날

경기 시작과 함께 강력한 압박으로 중원을 장악하면서 일찌감치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다. 최전방에 포진한 김동섭(성남)을 필두로 좌우 날개로 나선 윤일록-고용환(이상 서울),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은 이승기(전북)까지 공격이 차단되면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펼쳐 상대의 역습을 막아냈다. 이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하대성(서울)과 이명주(포항)가 수비부담을 덜고 공격 작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압박이 잘되면서 한국은 이날 호주에 슈팅 5개(전반 1개·후반 4개)만 내주면서 큰 위기를 맞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날 돋보인 점은 간결해진 패스와 이에 따른 공격 스피드의 향상이다. 수비라인에서 시작된 공격은 중앙 미드필더의 원터치 패스를 통해 좌우 측면 날개로 이어지고, 오버래핑에 나선 풀백으로 연결돼 크로스나 올라가는 공격 작업이 빠르게 전개됐다.

신대용 전 성남 감독은 "볼을 받으려 나올 때 그 자리를 다른 선수가 메워주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되면서 공격 템포도 빨라졌

다"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선수들도 자신감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KBS 해설위원 역시 "짧은 원터치 패스들이 잘 연결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며 "슈팅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유기적으로 잘 됐다"고 칭찬했다.

◇앞으로의 과제 '결정력을 높여라'=한국은 이날 전후반 90분 동안 무려 21개(전반 11개·후반 10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호주의 골키퍼인 유진 갈레코비치(애들레이드)의 신랄한 듯한 선방도 한몫했지만 슈팅의 방향이 너무 정직했다.

전반 29분 김영권(광주)의 강력한 무회전 프리킥이 몸을 날린 골키퍼 손끝에 걸리고, 전반 종료직전 골키퍼와 사실상 1대1 상황에서 시도한 윤일록(서울)의 슈팅이 골키퍼 가슴을 향하게 아쉬웠다. 또 '원발 마스터' 염기훈이 후반 26분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수비수 발끝에 살짝 걸리면서 호주의 오른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것은 이날 불운의 백미였다.

홍명보 감독은 호주와의 1차전에 대해 "선수들이 정진력을 앞세워 열심히 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남자대표팀은 호주에 이어 중국(24일·화성 종합경기타운), 일본(28일·서울 올림픽경기장)과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한대화 총괄 코치,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9회 뜨거운 손짓 왜?

제자 KIA 황정립 2군 미스터올스타 만들어 볼까 했지



"열심히 손짓을 했는데도 보질 않더라고."

지난 18일 1군 올스타전에 앞서 포항에서 열린 퓨처스 올스타전. KIA 꿈나무들을 이끌고 올스타전에 다녀온 한대화 2군 총괄코치는 선수만큼이나 바쁜 9회를 보냈다. 한 총괄코치의 뜨거운 손짓의 이유는 미스터 올스타 만들기.

이날 올스타전에 참가한 KIA 선수는 외야수 서용주, 포수 이흥구, 내야수 황정립, 투수 김윤동 4명이었다.

올 시즌 투수로 전향한 2년차 김윤동이 남부리그 선발로 2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이며 일단 우수 투수 후보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 3번 타자 황정립도 1회부터 1

타점 적시타를 때리는 등 멀티히트와 함께 볼넷 하나를 골라내며 MVP 후보에 올라 있었다. 그래서 4-2로 앞선 9회 황정립의 마지막 타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경쟁자인 2번 타자 상무 정진호가 황정립에 앞서 세 번째 안타를 때려낸 만큼 빈가 하나를 더 보여줘야 하는 상황. 큰 것 한방을 노리며 큰 스윙을 해보기도 했지만 상대 투수의 제구 난조로 두 번째 볼넷을 골라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황정립이 걸어나가자 한 총괄코치의 손이 바빠졌다. 감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황정립을 향해 '뛰라'는 손짓을 보낸

것이다. 스승은 하염없이 손 흔들었지만 이를 미처 보질 못한 황정립은 자리만 지키고 말았다. 결국 MVP는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1도루를 기록한 정진호가 가져갔다.

한 총괄코치는 "걸어나가길래 계속해서 뛰라고 손을 흔들었는데 보질 않아. MVP 좀 받아보게 하려고 했는데..."라며 깔깔 웃었다.

MVP는 다음으로 미웠지만 황정립은 우수 타자상을 받았다. 김윤동은 첫 올스타 출전에서 우수 투수에 선정됐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